

본문: 룻기 4 장 14-17 절

제목: 생명의 회복자

1. 다윗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종종 밤에 아이들을 재우면서 침대에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항상 시작하는 문구는 “옛날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입니다. 한국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읽어주었던 동화책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며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이야기 소재가 다 떨어지면 온갖 이야기를 섞어가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도 하죠. “콩쥐 팥쥐”와 “신데렐라”이야기가 섞이기도 하고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와 “책과 콩나무”이야기가 믹스되어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깜깜한 방 안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상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야기가 갖는 힘은 바로 상상력에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상상력을 가졌을까요?

룻기는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기록물로 남겨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벌어진 이야기이지만 다윗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왜냐면 다윗의 족보가 등장하고 옛날 고대 관습이나 법조항을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는 것을 보면 다윗 이후에 쓰여진 것이 분명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룻기가 바벨론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유다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 시기를 말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파괴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들의 후손들이 70년이 지나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정착한 이후에 룻기의 이야기가 쓰여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는 거죠. 나라가 망하게 되면 사람들은 역사를 되짚으면서 가장 강력했던 시기를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왕이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자 그들은 다윗왕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죠.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 왕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기를 바랐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흥미롭고 신나는 이야기였습니다. 룻기는 물론 다윗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다윗왕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로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다윗 왕같이 훌륭한 왕을 있도록 만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분명히 매력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망하고 없는 나라지만, 그들이 새롭게 다시 세울 나라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룯기를 통해 그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세울 나라는 헤세드가 베이스가 되는 나라라는 것이 지난 주 설교 말씀이었죠.

2. 이방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룯기가 쓰여졌던 시대가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였고 많은 학자들이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를 배경으로 한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성경책을 보면 당시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외국인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잡혀가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바벨론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유대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유다가 망하자 남쪽에 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그런데 율법에서는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말고 결혼은 더더욱 안된다고 쓰여져 있었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외국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난 겁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의해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걱정한 것이죠.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제사장 그룹인 레위인들조차 모압과 암몬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몇 개월동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이 사람들을 꾸짖은 거예요. 이방여자랑 결혼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되었다고 걱정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의 가장 큰 적으로 등장하는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라고 모두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참 신으로 받아들이고 율법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까지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에스라는 모압 암몬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무조건 이혼하고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이때 이런 움직임을 거슬러서 룯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룯을 보아라. 룯은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여인이었다. 롯은 모압여인이었음에도 우리가 그리워 하는 다윗 왕을 이 땅에 있게 만든 여인이었다. 롯과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이방인들까지 몰아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당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무조건 배재하고 몰아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외부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3. 생기를 되찾아 주는 사람(생명의 회복자)

롯기를 wrap up 해 보면 민족주의 속에 자신을 가뒀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따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공동체에서 밀어내고 우리 끼리 뭉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다윗왕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윗을 강조한다면 다윗을 있게 한 롯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롯기는 배타와 배제가 기본 정서가 된 주류 사회를 향한 거친 저항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체제를 거스르는 혁명적이고 위험한 책이었던 것이죠.

주류 사회에서 배제 당하는 이방여인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레디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 절에서 17 절 말씀은 베들레헴 여인들과 나오미 사이의 에피소드입니다. 앞서 1 장에서 나오미는 베들레헴 여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며 이야기를 나눈 적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였는데 아기가 태어난 후 대화의 주인공은 바로 롯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칭찬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나오미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는 겁니다(14 절). 15 절 말씀은 롯을 향한 최고의 칭찬이 여인들의 입을 통해 고백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일곱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습니다.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늘그막에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15 절).” 아들 일곱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 이 한 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들 낳아 뭐하냐, 어차피 남의 집안에 줄 자식인데” 라고 말합니다. 롯과 같은 며느리 한 명 얻을 수 있다면 아들 일곱이 뭇니까, 아들 한 트럭이라도 다른 집안에 주는 것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15 절에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전 번역에는 “생명의 회복자”라고 번역된 부분이죠. 원래 생명으로 번역된 ‘네페쉬’라는 히브리말은 사람의 영혼육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생명, 존재’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이죠. 창세기 2 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고 했을 때, 생령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네페쉬라는 이 단어 입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니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 사람답게 되었다는 거죠. 생기를 되찾아 주었다는 것은 단순히 활력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 이상입니다. 상대의 존재를 생기 있게 해주고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룯이라는 이방 여인이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아 준 것입니다. 이 구절은 생명의 창조자(creator)이자 지탱자(sustainer)로서의 야웨의 이미지를 생각하며 말해진 것입니다. 야웨라는 이름 안에는 생명의 ‘창조자’와 ‘지탱자’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 여인들에 의해 고백되어지는 축복을 보십시오. 룯이라는 여인을 통해 생명이 창조되고, 그 생명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룯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나오미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행해 주는 대행자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칭찬과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 변두리에 있는 이들

룯기는 결국 ‘공동체의 외부인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 말하는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활동 하던 때, 복음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 중 하나는 ‘이웃의 범위’였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답변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히브리민족과 앗시리아 사람들의 피가 섞인 혼혈민족으로서 무시를 당하고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밀어낸 그 사람들이 오히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생기를 돌려주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대부터 인간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끼리’ 문화였습니다. 옛날부터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밀어내는 것이 인간 사회의 특징이었죠.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것이 너무 심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자꾸 사회의 변두리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런 한국사회에서 자라온 우리는 이제 신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미국 사회 안에서 우리는 주류 사회와는 전혀 다른 피부색과 민족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

입니다. 그래서 인도, 중국, 한국과 같은 아시아 민족들은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든 주류가 되기 위해 자녀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메인스트림이 아닌 변두리 문화 속에서 생명이 창조되고 유지됨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밀어낸 매우 보잘 것 없고 연약해 보이는 이들로 인해 공동체가 활기를 얻고 유지되어 간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회가 정해 놓은 기준에 못 미치는 볼품 없는 존재들이 오히려 유익하고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 장의 말씀은 고난 당하는 종의 노래로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2 절). 예수님이 아주 수준 미달의 외모와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보잘 것 없는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얻어 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조건을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생기를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회복자’로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의 삶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5.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우리 자녀들이 미국 사회에서 항상 아웃사이드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랑은 전혀 다를테니까요. 룻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로 자라는 것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다 사회 안에 많은 영감과 생명력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마태복음 1 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4 명의 여성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질 지 모르지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바이링귄이라는 장점을 가진 아이들이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그릇이 큰 아이들입니다. 이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상상력과 영감에 많은 자극을 줄 것입니다. 자녀들이 처한 환경에 너무 걱정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들을 헤세드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에 온 마음을 쏟으십시오. 헤세드의 사람이 이 사회를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헤세드의 사람을 통해 이 사회는 생기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푸념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영어 못한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룯이 히브리어를 당시에 얼마나 유창하게 했겠습니까? 그녀는 오히려 몸으로 헤세드를 실천했고 베들레헴 전체를 헤세드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닌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이 이 사회를 움직여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관계들 안에서 최선을 다해 헤세드를 실천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인애를 행하시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직장 동료들에게 친절히 대하시고 책임있게 행하십시오. 이런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공동체에 생명을 창조하고 생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생명이 회복되고 생기가 되찾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생명의 회복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드립니다.